

Saath Saath 팀의 3월 보고서



Team 'Saath saath'

3 3 3 3

Mumbai, India



1	2	3	4	5	Holi 6	7
				도착	휴식	- 관광 (Gateway of India)
8	9	10	11	12	13	프록터데이 14
- Bombay YMCA - Ghatkopar YMCA	- ORD YMCA - Saarthak YMCA - 뭄바이 문화,역사,다양성 에 대한 설명듣기 (멜빈) - Kamathipura - Colaba YMCA - 관광 (Girgaum Chowpatty, Marine Drive)	- Khar Danda YMCA - Borivali YMCA - Juhu Centre - Boys Home	- Ghatkopar YMCA (Mehndi 한 날) - Navi Mumbai YMCA	- Hindi Class - Kamathipura	- Hindi Class - Proctor Day 참가	
15	16	17	Tara 18	19	20	21
- Hindi Class - 코디네이터와의 만남 - Dhobi Ghat	- Hindi Class - Dhobi Ghat	- Hindi Class - Kamathipura - Staff meeting - 예현이생일파티	- Hindi Class - Kamathipura - 인도 전통 춤 공연	- Hindi Class - Kamathipura	- Hindi Class - Kamathipura	- Hindi Class - Kamathipura
22	23	24	25	26	27	28
- Hindi Class - ORD - Dhobi Ghat	- Hindi Class - ORD - Dhobi Ghat	- Hindi Class - ORD - Kamathipura	- Hindi Class - ORD - Kamathipura	- Hindi Class - ORD - Kamathipura - Pre-camp Meeting	- Hindi Class - Christian Singing Competition	
29	30	31	1	2	Deepa 3	이사 4
	- 한국 게임 진행 - 350PPM 활동					



Branch 방문
Camp

월-토 활동 / 일요일 영문 주간보고서 작성 및 현지제출

Team 'Saath saath'



Mumbai, India





Motalli (막달리)
(으리하)

Azad – 윤도원
Freedom (남.26세)



처음에는 자유분방하다는 뜻으로 알고 선택했는데,
알고보니 그냥 자유가 아닌 freedom 이었다.
너무 무거운 뜻인 것 같아서 걱정했지만,
지금은 많은 이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Azad! Oh~ good name!'
이라며 칭찬을 해주신다.
그래서 몹시 자랑스러워 한다.

메트로 역 이름인
아자드 나가 (Azad nagar)를
들을 때 마다 팀원들이 쫓아낸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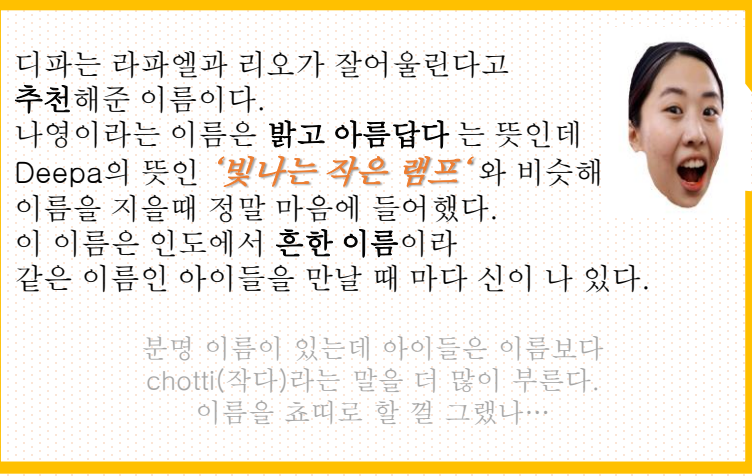
하... (아직 별명이 없음)

Sachin – 이승희
Pure, cricket player (남.24세)



사친이 이름 지을 때 가장 많이 고민했었다.
타인에게 쉽게 기억될 수 있는 이름을 원했는데
아밀 부자, 아쉬시, 아비셴 등
엄청 많은 이름들이 나왔었지만
씩 내키지 않아했다.
그러다 '사친'이라는 인도에서 정말 유명한
크리켓 플레이어의 이름이 있던 말에
바로 선택 했다.
누군가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 마다
크리켓 플레이어 사친 이야기를 꼭 하는데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다.

지금 크리켓 시즌!!! 사친의 이름이 빛나는 순간!
허나 그렇다고 무조건 아이들이 사친을
크리켓 게임 할 때 끼워주진 않는다는 점
(아직까진 볼보이, 수비수로 활동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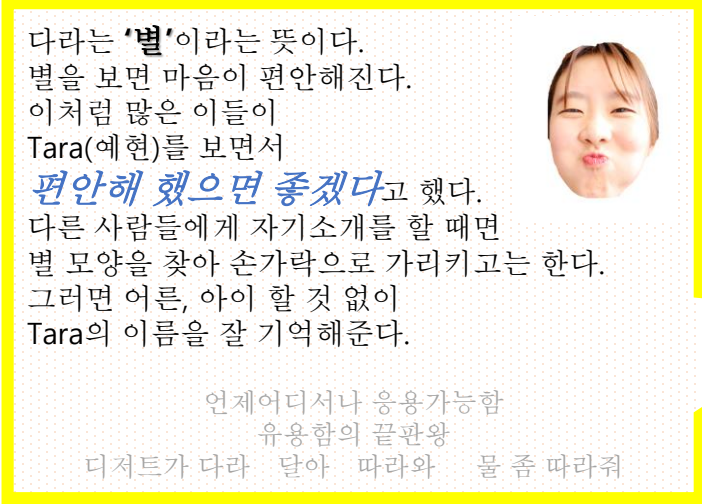
(꼬꼬마아니야...)
꾸꼬마나 이해

Deepa – 김나영
Light, Lamp (여.23세)



디파는 라파엘과 리오가 잘 어울린다고
추천해준 이름이다.
나영이라는 이름은 밝고 아름답다는 뜻인데
Deepa의 뜻인 **'빛나는 작은 램프'**와 비슷해
이름을 지을 때 정말 마음에 들어했다.
이 이름은 인도에서 흔한 이름이라
같은 이름인 아이들을 만날 때 마다 신이 나 있다.

분명 이름이 있는데 아이들은 이름보다
chotti(작다)라는 말을 더 많이 부른다.
이름을 초퍼로 할 걸 그랬나...



Giraffe!!!

Tara – 임예현
star (여.22세)



다라는 '별'이라는 뜻이다.
별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Tara(예현)를 보면서
편안해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면
별 모양을 찾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는 한다.
그러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Tara의 이름을 잘 기억해준다.

언제 어디서나 응용가능함
유용함의 끝판왕
디저트가 다라 달아 따라와 물 좀 따라줘

'Saath saath'



각자의 이름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팀 이름이다.
우리는 고민하던 끝에 ‘함께’ 라는 뜻인 ‘Saath saath’ 으로 지었다.
이름처럼 우리들은 항상 함께할 것이고,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는 우리들을 잘 지켜봐 주었으면 한다.



Team 'Saath saath'



Mumbai, India



힌디어 수업 (3/6 ~ 3/28)



구미YMCA에 있을 때 힌디어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다. 또한 영어로 소통이 많은 부분 이루어진다는 말도 들어서인지 뭍바이에 와서 힌디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힌디어 수업'이라는 것이 인도라는 나라에 왔으니 한번 배워보아야 하는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뭍바이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 대부분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주로 가난한 배경을 가졌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선** 힌디어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직접 체감하고 힌디어를 배우는 우리들의 태도는 주체적으로 바뀌었다. 아이들이 힌디어로 말하는 것을 하나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 더 잘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큰 **열정**을 가지고 힌디어 수업에 임했다. 일정표에도 나와있듯이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1시간 30분 동안 사바 선생님의 가르침 하에 힌디어 수업을 들었다. 전 기수에게서 들었던 대로, 사바 선생님은 첫날부터 많은 단어를 칠판에 쓰면서 암기식 위주의 수업을 진행했다. 영어 뜻을 쓰고, 그 옆에 힌디 단어를 쓰고, 소리 나는 데로 영어 알파벳을 써주었다. 한국에서 'ㄱ, ㄴ, ㄷ, ㄹ...' 그리고 'ㅏ, ㅑ, ㅓ, ㅕ...'를 먼저 배우듯이 힌디어의 자음과 모음을 읽고 쓰는 법을 먼저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이것을 먼저 가르쳐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어를 외우면서 자음과 모음을 익히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 힌디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는 일단 단어를 많이 배우기로 결정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단어에서 문장으로 초점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다. 배운 단어들을 합쳐서 문장으로 만들어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많이 말해보았지만, 그 뜻이 정확히 전달 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황별 대화에서 자주 쓰이는 문장들을 미리 준비해 가 사바 선생님에게 물어보았고, 그것을 힌디어로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많은 단어와 더불어 인도 아이들이 많이 따라 부르는 동요도 배웠는데, 이는 아이들과 조금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였다. 힌디어를 배우면서 많은 혼란을 느끼기도 했다.

사물과 사람의 성별에 따라 힌디 단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멘붕으로 빠트렸고 간단히 맛만 보았던 힌디문법은 복잡하고 어려워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다. 힌디어는 더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에게 좋다는 생각을 4명 모두 공유했다. 이제 안데리라는 뭍바이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도 힌디어를 계속 배울 생각이다.

까마티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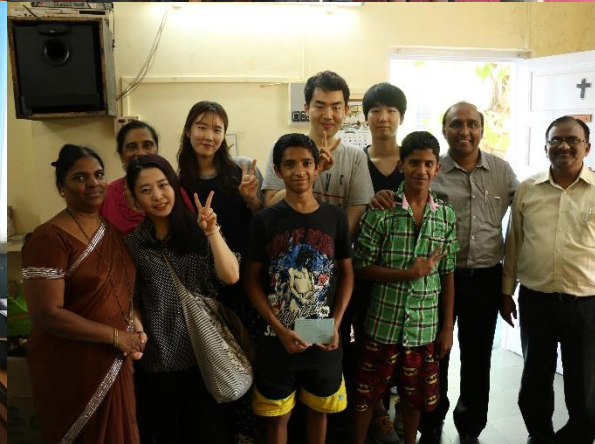


국내 훈련과 이전 기수와의 인수인계 때부터 뭄바이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까마티푸라 Day Care Center를 둘러싼 **외부 환경의 열악함과 이를 해결하고자 했던 이전 기수들의 노력,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 들었다. 걱정과 기대감, 변화에 대한 희망과 우려를 모두 안고 시작한 까마티푸라 활동이었다. 말로만 듣던 까마티푸라에 다녀온 첫 날부터 팀원 모두가 생각이 많아졌다. 아니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모른다. 어쩌면 낯선 더위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쓰레기가 비처럼 내려와 눈처럼 쌓여있는 모습, 우리를 보며 울음부터 보이는 아이들, 쉽게 뭐라 말할 하기조차 버거운, 까마티푸라의 첫 인상은 그랬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려는 것이 해도 되는 것일까, 아니 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외부 환경의 개선이라는 것에 너무 사로잡혀 정작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리고도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이어졌다. 나눔 때마다 이에 대해서 한참이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함께 고민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기보다 조금 천천히 둘러보기로 했다. 그렇게 3월 한 달은 까마티푸라가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까마티푸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낸 것 같다.

첫 주에는 Day Care Center의 Kanchan 선생님께서로부터 까마티푸라 Day Care Center와 아이들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본격적인 활동은 두 번째 주부터 시작할 수 있었다. Balwadi, Day Care Center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공부하면서 낯섬을 조금씩 줄여 나가려고 했다. 센터의 선생님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동네를 둘러보며 가까워지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변화의 씨앗을 찾으려는 시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당연한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우리가 가진 ‘외부인’의 시선을 잃지 않으려고 했다. 동시에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지는 않을까, 마냥 조심스러웠던 한 달이었던 것 같다. 까마티푸라에서 보낸 3월 한 달, 우리는 아이들의 위생과 마시는 물, 그리고 내부 환경에서 변화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지 사무국에 제출하는 주간 보고서를 통해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변화를 향한 첫 걸음을 뗐고, 우리 네 명의 팀원들끼리도 꾸준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다. 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기 보다는 깊게 바라보고 차분히 고민해서 더 나은 변화의 방향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브랜치 방문



브랜치 방문

뭄바이 도착 이후, 우리의 첫 스케줄은 뭄바이 전역에 퍼져있는 YMCA의 Branch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숙소로 쓰고 있던 International House에 위치한 Bombay YMCA의 General Secretary, Mr. Simeon의 사무실부터 차를 타고서도 한참을 가야 했던 New Bombay Branch까지, 총 11개의 Branch를 둘러보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각각의 Branch들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부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운영 방식, 그리고 책이나 인터넷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뭄바이와 인도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뭄바이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 우리가 이 큰 도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하나하나의 Branch가 각각의 지역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직접 볼 수 있었고, 동시에 뭄바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도 이 Branch들과의 연대를 통해 커다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엿보았다. 우리가 찾아간 11개의 Branch 모두 우리 라온아띠를 반겨주셔서 그 기대에 부응하며 잘 해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우리 모두를 지지해주고 있음을 확인하며 또 든든해질 수 있었다.

도비가트 (Dhobi Ghat)

인도에서 빨래를 해주는 사람들을 '도비'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들이 모여있는 도비가트라는 지역에서 새롭게 프로젝트(Rag Pickers Project)를 시작하게 되었다. 길 가운데는 쓰레기로 쌓여져 있고, 양 옆으로 집 같지 않은 허름한 집들이 하나 둘 있고, 그런 허름한 집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곳에서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가 하는 이 프로젝트는 도비가트 내에 있는 한 센터에서 진행되었다. YMCA에서 렌탈을 한 장소였는데, 불필요한 가구들로 장소가 매우 비좁았고, 환경이 열악한 지역 내부에 있어서인지 창문으로 먼지도 들어왔다. 이곳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포함한 여러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가서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왜 우리가 여기에 온 건지 많은 의문이 들었다. 프라카시라는 사회복지사 한 명이 우리와 함께 했는데, 그로부터 우리의 의문과 궁금증들을 물어봐서 답변을 받아야 하지만 언어 차이로 인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끼리 물어 물어 스스로 알아봐야 할 때 조금 힘들었다. 나중에 한 волон티어의 도움으로 도비가트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프라카시와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활동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색종이 접기 활동을 진행하며 개구리, 공, 배, 비행기, 하트 등을 접는 법을 가르쳐주었고, 스스로 접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활동뿐만 아니라 영어 교육도 병행을 했다. 아이들이 영어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쉬운 영어부터 아이들에게 조금씩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기존의 우리가 한국에서 배우는 딱딱한 영어가 아닌 조금 더 쉽고 재미나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힌디수업 때 배운 영어 동요를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다. 율동을 추가해서 가르치니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고, 다음 번에 방문했을 때 그 동요를 좀더 잘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았다.

도비가트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가지 우리가 발견한 것은 아이들의 **신발 문제**였다. 그 센터에 찾아오는 아이들은 신발을 벗고 실내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 신발들을 실내 한쪽에 놓고 있었다. 활동하기에 공간도 매우 협소하고 위생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 우리는 신발을 따로 둘 공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다. 이 센터가 렌탈한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다.



싸탁 플레이스쿨

3월 19일 부터 우리는 프록터YMCA 근처에 있는 싸탁 Play school에서 활동하기 시작 했다. 이곳에는 총 4개의 발와디(유치원) 반이 있다.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6번, 즉 일주일간 1시간씩 총 6시간뿐이었다. 사실 그전에 우리들의 코디네이터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해서 우리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 했고, 진슨과의 미팅 때 무엇이든 아이들과 함께해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게임도하고, 춤도 알려주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정말 짧은 기간 동안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일주일 동안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러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의의를 두었고, 이 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거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을 만나도록 한 클래스를 이틀씩 방문했다. 처음에는 우리를 보고 울고, 놀라던 아이들이 두 번째 날에는 우리들을 무서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벅 찰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같이 놀자고 쫓아오기도 했다. 그 당시는 몸이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즐거워한다는 점에 기뻐했다.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들은 활동 내내 도대체 이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며 매 나눔시간 마다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시간배정이다. 우리는 12시부터 1시까지 총 1시간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내도록 일정에 나와있다. 하지만 12시부터 1시까지는 아이들의 점심시간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밥을 다 먹기 전까지 우리들은 가만히 밖에서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작 15분 정도였다. 게다가 점심시간 직후라 아이들은 뛰거나 좀더 신나는 활동들을 할 수 없었기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몹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과의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있었다. 진슨과는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곳에 방문을 하고 우리들이 이곳에서 활동할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지 우리들이 갔을 때 우리들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데 영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없었고, 그 시간대에는 사무실에도 영어를 할 줄 아는 분들이 없으셨다. 어쩔 수없이 우리는 조금 배운 힌디 실력으로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많았다. 오히려 이 시간에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보냈다면 더더욱 유용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우리들은 다음 일정을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의문이 들었던 활동이다.



350PPM



"It only takes a spark to burn"

Saath Saath팀이 다녀온 이번 캠프의 테마 처럼 작지만, 일상 속에서 350PPM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나갔다. 국내 훈련을 하는 동안 정해놓았던 우리의 수칙 외에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 지키고 싶은 것들에 대한 논의가 출국 전 캠프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1. 5층 이하 건물은 계단을 사용해 오르기 2. 손수건 사용하여 휴지의 사용 줄이기 3. 에코백 항상 들고 다니기 4. 텀블러 사용하기**를 일상 속에서 실천했다. IH에 머무르는 동안, 때때로는 무더운 날씨와 피곤함으로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한 유혹에 마주하기도 했지만, 서로 서로를 도와가며 계단을 오르곤 했다. 이런 기본 규칙을 제외하고도 나눔을 통해 **에어컨 사용에 대한 제한을 정하거나, 잔반 남기지 않기, 샤워나 빨래를 할 때 양동이에 물을 받아 쓰기** 등 350ppm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350ppm에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몸바이에서의 한 달을 보냈다.

하지만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350ppm을 실천하던 와중에 우리의 코디네이터와 캠프의 350 ppm 세션과 350ppm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동안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수 많은 고민들이 던져져 350에 대해 둘러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갖기도 했다. 350ppm을 위한 노력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려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는 것 만으로도 350ppm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마음가짐을 정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 팀은 나와 환경에 좀 더 sensitive 해지는 것, 지금 당장보다 미래를 보는 것, 일상을 다시 보는 것, 과도하게 쓰고 있던 것을 하나씩 줄이는 것을 350ppm을 위한 노력으로 정의 내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이 남아 있는데, 350ppm을 위한 노력과 다른 가치들이 배치될 때 어느 정도까지의 노력이 필요한지, 우리 보다 훨씬 탄소배출량이 적은 인도 사람들과 350ppm 캠페인을 진행할 때 캠페인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지, 또 서로가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노력의 범위가 다를 때 팀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등을 여전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중이다.

Camp (3.30~4.2)



3.30일부터 4.2일까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약 5시간 정도 떨어진 Nilshi로 캠프를 다녀왔다. 캠프는 82명의 청소년들과 8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했고, **"It only takes a spark to burn"** 이라는 테마로 진행되었다.

우리 Saath saath팀은 라온아띠로서 350세션과 게임 세션을 맡아 진행했고, 그 외 활동에는 봉사자로서 그리고 캠퍼로서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며 보냈다.

Camp (3.30~4.2)

한국게임진행



게임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게임 여러가지를 준비해놓고 현지 볼런티어의 피드백을 받아 준비했다. 우리는 **몸으로 말해요, 일심동체, 신문지 위에 올라가기, 한붓그리기** 게임을 두명씩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시간계산의 문제였다. 볼런티어들과 리허설을 진행 했을 때에는 빠르게 진행되어서 아이들과도 비슷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훨씬 많은 인원들에게 새로운 게임을 설명하고 집중시키는 데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 나중에는 게임을 하나로 줄여서 하기도 했다.

두 번째는 볼런티어들과의 소통의 문제였는데 볼런티어들이 게임 직전에 아이들을 집중시킬 때에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분위기가 가라앉아 아이들이 게임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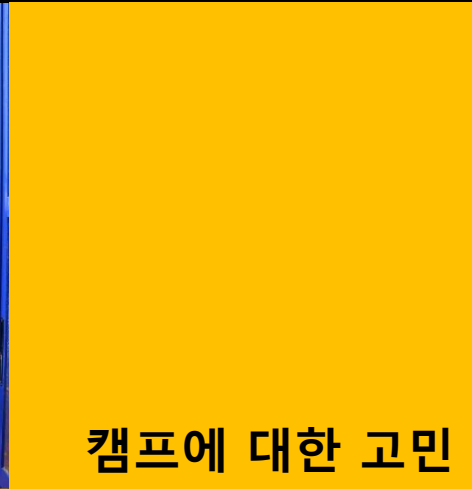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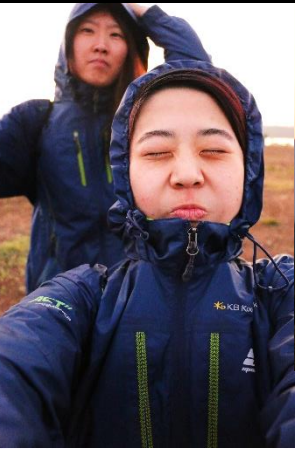
그래도 게임을 진행하면서 융통성 있게 운영방안을 변경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아이들과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다.

Camp (3.30~4.2)



암벽등반, 래프팅, 타잔스윙, 양궁 등 이들에 걸쳐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이 시간에는 캠퍼가 되어 모든 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이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일부 볼런티어와 스태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라온아띠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지켜보며 사진만 찍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진행하지도 못한 채 불편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Camp (3.30~4.2)



캠프에 대한 고민

우선 전체적으로 캠프 도중 우리에게 많은 고민들이 생겨났다. 첫 번째는 라온아띠가 캠퍼도 봉사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다.

볼런티어로서 가기는 했지만 다른 현지 볼런티어보다 전해들은 정보도 많지 않았고 언어적이 소통의 문제도 있어서 아이들을 완전히 이끄는 것을 불가능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캠퍼로서 참여하기에는 맡고 있는 세션도 있고, 여자 단원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보호자로서 캐빈 하나를 책임지고 있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행하는 세션 외에는 이도 저도 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서 있는 경우가 많았고, 남자 단원들과 같은 경우에는 캠퍼들과 숙소도 함께 쓰지 않아 아쉬움이 조금 남기도 했다.

또 우리 안에서는 캠프가 다른 활동들을 모두 중단하고 갈만한 가치가 있는 활동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오기도 했다.

캠프로 인해 그 전에 우리가 하고 있던 모든 활동의 흐름이 끊기기도 했고, 안데리로 이동하면서 끝나는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캠프 이전에 공지받지 못한 채 캠프를 다녀와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한 경우도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350 캠페인의 진행이나 캠퍼들과의 만남이 그 만큼 가치 있을 수 있다는 의견 역시 있어, 앞으로 있을 캠프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캠프를 통해 **좋은 친구들과 추억**들을 얻었음은 분명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

Camp (3.30~4.2)



350PPM 세션

약 한 시간 가량 캠퍼들에게 350ppm에 대해 알리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쉽고 간략하게 350ppm에 대해서 설명할 ppt와 각 ymca 브랜치에서 모은 이면지로 다 함께 **재활용 수첩**을 만드는 activity를 준비했다. 그런데 350세션이 있던 당일, 스태프로 부터 전기가 나가 프로젝터, 마이크, 조명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도 350세션은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모두가 당황해 잠시 병져있었다. 결국엔 전기가 돌아와 모든 것을 예정대로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끝내 고쳐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준비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모두가 다음 캠프 때에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재활용 수첩을 만드는 과정 중에 우리는 또 한번의 문제에 부딪혔는데 준비해 간 준비물들이 모자라 아이들이 수첩을 만들는데 차질이 조금씩 생겼기 때문이다.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요구해서 정말 최소한의 양만 준비했는데, 다음 부터는 필요한 준비물을 충분하게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재활용 노트는 아이들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창의적이고 깊은 생각으로 꾸며졌고, 그들이 지킬 수 있는 다짐으로 첫 장이 채워졌다. 진행에는 조금 차질이 있었지만, 다음날 활동을 진행할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재활용 노트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350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생각이 들었다. 캠프에 다녀온 이후로는 이 캠퍼들의 350ppm 활동의 지속적 참여를 위한 follow up 활동을 준비 중이다.

Team 'Saath saath'



Mumbai, India



Mumbai City Tour! (with. Raphael, Richard)



3/10, Marine Drive, Girgaum Chowpatty

모든 일정이 끝난 후 우리는 콜라바 YMCA 근처에 있는 '마린 드라이브'로 갔다. 저녁노을도 예쁘고, 사람들도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도하고 어떤 커플들은 데이트를 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온 3인, 그리고 한강에 대한 환상이 가득한 울산 1인은 마린드라이브에서 '한강에 온 것 같다'며 정말 마음에 들어 했다. 여기서 예쁜 사진도 많이 찍었다. 후에 우리는 기르가호 바다로 갔다. 넓게 펼쳐진 백사장,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었다. 그리고 Deepa(나영)가 틴트를 바르고 나올때마다 라파엘이 'Gola' 먹었냐고 물어봤었는데, 그 'Gola' 를 처음으로 맛보았다. 딸기 맛, 파인애플, 그리고 MIX 맛을 선택했다. 딸기, 파인애플은 정말 맛있었다. 하지만 MIX맛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맛이였다. 뭐랄까...마치 음...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맛? 그래서 우리는 서로 MIX맛을 먹지 않기 위해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동영상도 찍고, 바다도 감상했다.

Mumbai City Tour! (with. Raphael, Richard)



3/ 19, 콜라바 시내 구경

우리들은 일정을 마치고 두 명의 봉사자, 그리고 라파엘과 함께 인도 전통 춤 공연을 보러 갔다. 그런데.... 우리가 바람에 일찍 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 회원이 아니기도 하고 만석이 되어(ㅠㅠ) 공연을 보진 못했다. 그 대신 근처에 있는 근사한 쇼핑몰에 가서 에어컨 바람도 쐬고, 구경도 했고, 인도 음식점에 가서 Curd먹는 법도 배웠다. 그러면서 볼런티어들과 이것저것 이야기도 나누면서 친해졌다.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

우리들의 IH 생활



남의집 훑쳐보기

리차드, 라파엘이 또 늦었어^^

그..그래?

169cm

175cm (?)

그 남자의 고독

과연...진실은???

우리는 한 달간 IH (International House)에서 살았다. IH는 숙박 시설이다 보니 방 청소는 물론 빨래 서비스까지 제공된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것 보다는 우리들이 사용한 장소는 우리들이 청소하고 싶었고, 또 그게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의 코디네이터에게 몇 차례 우리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청소도구와 같은 것들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차피 Boys home에 가면 스스로 해야 하니 거기서 시작하라는 말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직접 직원들에게 우리 방은 청소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아무런 도구 없이 손으로 매일매일 청소와 손빨래를 했다. 까마티푸라와 도비가트 등 몇몇 센터를 가면 아이들과 놀 때 바닥에서 구르고, 눕기도 하다 보니 옷이 엄청 더러워져있는데, 손빨래로 한 시간을 문질러도 잘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벌써 옷들이 까맣게 변했다.

(간사님, 월간보고서 보고 게시죠?... 혹시.. 남는 옷들 보내주시면 **bahut bahut danyawaad!!!!**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Tara's Birthday (3/18)



내가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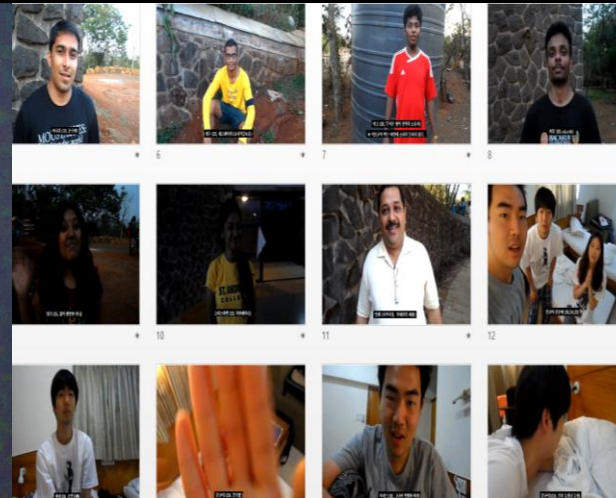
3/18

3월 18일은 Tara(예현)이의 생일이다. 인도에서 맞는 첫 생일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즐거운 생일을 보낼까? 하고 고민했다.

그러다 Tara(예현)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나머지 팀원들은Tara(예현)의 깜짝 생일파티를 준비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일 전부터 우리와 가까이 있는 여러 사람들(잘생긴 경비오빠, 잘생긴 카운터오빠, 친절한 식당식구들, 사바선생님, 개, 고양이, 그리고 남자친구)을 찾아가서Tara(예현)의 생일임을 알리고, 영어, 힌디, 마라ठी 등등 여러 나라 말로 "Happy Birthday!" 라고 외치는 깜짝 축하영상을 준비했다.

Azad (도원)의 잔머리, 그리고 Sachin(승희)의 도구, Deepa(나영)의 재치로 이 영상을 정말 깜! 짱! 놀랄 수 있도록 '나눔'시간에 보여줬고, 이 영상을 받은Tara(예현)는 보는 내내 기쁨을 감추질 못했다. 이 영상은 평생 소장하고 싶다며 자신의 USB에 옮겨 담기도 했다. 마지막 선물로 Azad(도원) 가 한국에서 가져온 미역국을 끓여주었는데 정말 정말 맛있었다고 한다. 잊지 못 할 생일파티였다.

Deepa's Birthday (4/3)



4월 3일은 Deepa(나영)의 생일이다. 눈치가 몹시 빠른 Deepa(나영)라 그런지 모든 팀원들이 더욱이 열심히 생일축하 영상과 몰래카메라를 준비했었다. 그러나... 생일파티를 하기도전에 생일축하 영상을 찍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너 내 생일영상 봤니? 생일 축하해!" 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고, 깜짝 생일파티를 하기로 정해놓은 있는데 갑자기 Deepa(나영)가 샤워를 해서 깜짝 파티시간이 지연되기도 하고, 엄청난(?) 연기실력으로 들통나기도 했다. 준비한 몰래카메라는 Deepa(나영)생일이라 Tara(예현)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게 승희오빠의 실수로 지워졌고,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Azad (도원)가 이렇게 싸울 거면 생일파티 왜 준비하냐, 나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우리가 생일파티 하러 온 거냐? 라는 내용이였다. 그러나... Deepa(나영)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컴퓨터를 만지다가 휴지통에서 'Happy Birthday' 완성본 영상을 발견했고, 이에 당황한 팀원들이 '너 지금 뭐 만져?' '언니, 그건 안봤으면 좋겠어요.'라며 몰래카메라 티를 팍팍 냈다. 그래도 정말 즐겁고 행복한 생일이였다. 아, **'야, 너 나한테 악감정 있냐?'** 는 인도생활 내내 잊지 못할 사친의 명대사다.

사건.. X파일



인도에 온지 3주가 되었을 때 우리는 여태까지 보지 못한 인도의 다른 부분을 보게 되었던 것 같다. 하나는 Deepa의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는 Tara의 이야기다. Deepa(나영)가 까마티푸라 가던 길에 갑자기 발이 아파서 봤더니 차 바퀴에 발이 깔렸다. 교통사고를 처음 당하다 보니 놀라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상태가 됐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사람을 치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 한마디, 혹은 아프냐는 물음 없이 그냥 지나갔다는 점이다. Deepa(나영)의 발은 멀쩡하다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Pre-camp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람들이 가득 찬 local train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인도의 local train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다. 이 날, 이 시간은 특히나 출퇴근 시간이었고 거기다 급행기차라 그런지 팔, 다리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러다 도착지에 다 와 갈 때쯤 사람들을 비집고 가장자리에서 문가로 조금씩 이동하며 가다 Tara에게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마냥 평화롭던 Saath Saath 팀의 안전에 빨간 불이 들어왔던 한 주 였다.

Team 'Saath saath'

개인이 세이

Mumbai, India





Sachin

열도 나고 얼굴도 부은 채로 공항의자에 벌러덩 누워 자다 출국한 게 엇그제 같은데, 나의 뭄바이 생활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어찌 보면 짧고 어찌 보면 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인도를 둘러보며 들었던 수많은 생각을 두 단어로 정리해보면 **"분주함"**과 **"불안전"**이다. 기차와 버스에 올라타려는 사람들 그리고 길거리의 운전자들을 보면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자리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타겠다고 출입구에 다닥다닥 매달리고, 한번 안에서 툭 치면 떨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광경을 지켜보는데 '나 같으면 다음에 오는 거 탄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도로 위는 차들로 뺨뺨했고, 안전거리 확보는 안중에도 없었고,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건너는 사람들 때문에 경적은 실재 없이 울려 퍼졌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러한 광경을 계속 접하면서 나도 뭄바이의 이런 분주함과 불안전에 익숙해 진 것 같다. 경적 소리에도 이제는 둔해지고,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길을 건너는 나의 모습에서 느낄 수 있었다.

뭄바이도 여느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거리를 걸을 때마다 느끼게 된다. 누군가는 외제차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지만 누군가는 바닥에 천 한 장 깔아놓고 잠을 청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크고 화려한 집에서 경비원들도 고용해서 살지만 누군가는 다 쓰러져가는, 물과 전기도 나오지 않는 집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빈부격차 문제, 그리고 부패로 인해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들, 그로 인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 슬럼가의 사람들...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할 때마다 무기력함을 느끼고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볼 수 있었다.



뭄바이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표현을 표절해보자면 조금씩 “말랑말랑” 해져가는 나 자신도 발견할 수 있었다.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누군가를 대하는 것에 조금은 어색하고 서투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여기서 활동을 하며 많은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관계 형성에 있어 나보단 조금 더 일가견이 있는 Deepa와 Tara를 보고 배우면서 나 자신이 조금은 유연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누군가에게 농담을 던지고, 장난을 거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나 자신도 살짝살짝 놀란다.

뭄바이에서 이승희가 아닌 **사친(Sachin)**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해줬을 때 큰 기쁨을 느낀다. 미국에서 잠시 살았을 때는 영어 이름도 없었을 뿐더러, 몸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살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곤 했었는데, 뭄바이에 살고 있는 지금은 뭔가 “**진짜로 아주 제대로**” 경험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함을 베푸는 현지 사람들, 의지할 수 있고 같이 함께하면 든든한 뭄바이 팀원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 나 자신에게도 감사하다.



Tara★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조차 아직까지 문득 문득 내가 이곳에서 삶을 꾸려나가고 있음이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예현이라는 이름보다 Tara라는 이름과 didi를 부르는 목소리에 더 잘 뒤를 돌아보는 내가, 고개를 위아래가 아닌 좌우로 고덕이는 내가, 때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색하기도 하며 때로는 이 시간이 지난 한 달이 그랬던 것 처럼 훌쩍 흘러가버릴까 조바심이 나기도 한다.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면 가장 먼저 스쳐가는 생각은 내가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괜찮을까 하는 것이다. 이것 저것 서툰 내게 먼저 다가와 나를 불러주고 웃어주는 아이들을 만나며 매번 감사함을 느끼고 그런 아이들이 생각날 때마다 활짝 웃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 주후에서 만난 아비섹이 했던 이야기가 문득 문득 떠오른다.

아비섹은 주후 센터에 있는 친구인데, 그 동안 8기 부터 우리까지 모든 라온아띠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우리는 반가운 마음에 그 중 너의 "best friend" 가 누구냐고 질문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친구가 아니라는 말이었다. 아비섹은 우리가 머물 사람이 아니고 곧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친구로 만들지 않는다고 대답해줬다. 순간 나는 멍 하고 머리라도 한대 맞은 듯, 쉽게 가라앉지 않는 혼란스러움과 미안함에 정신 못 차리고 서 있었던 것 같다. 솔직하게 나는 그가 많은 라온아띠를 만났다고 했을 때 재밌는 추억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그들과 친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나도 그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많은 라온아띠를 만난 만큼, 더 많은 헤어짐을 경험했고, 그것은 온전히 그만의 상처로, 혼자 남은 그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상처로 남아버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나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 또한 그에게 헤어짐을 맞이하게 할 것이고, 또 한번의 상처를 줄 것이다. 아마 나도 헤어짐이 힘들 것이고, 그리울 테지만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들에게겐 일상에서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이니 감당해야 하는 빈자리의 크기가 다름이 크게 느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니,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친해지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지만, 내가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너무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자꾸만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 집으로 돌아갈 때 마다 손을 꼭 잡고 보고 싶을 거라며 이야기 해주는 친구들인데 너무 행복해서인지 그냥 겁이 난다. 내가 느끼는 사랑을 숨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긴 하지만.



Tara★

이번 한 달에 대해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무더지지 않는 빈부격차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집에서 한 발짝만 나가면, 아니 나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차이를 만난다. 서울에서 간간히 만났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나의 일상에 깊게 들어와 있다. 높은 고층빌딩 옆 거리에 담요 하나 깔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레스토랑의 투명한 유리창이 나누고 있는 안과 밖의 풍요로움과 굶주림, 쓰레기 더미에서 신고 다닐 신발 하나 없는 아이와 메이커 신발을 신고 아이의 손을 잡은 나. 첫 며칠은 지켜보는 것조차 힘들었다. 눈을 떼지 못했고, 말을 걸어오면, 나를 두드리면, 무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열려버렸다. 이 도시를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한 없이 작아지는 느낌이 나를 감쌌고 어느새 고개를 돌리며, 눈을 감으며 피하고 싶어하고 있었다. 아직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4개월을 꾸려야 할까 고민이 많아진다.

이렇게 고민도, 걱정도 많고 서툰 내가 그래도 이곳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도와주고 잡아주는 팀원들이 옆에 항상 있다는 사실이다.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뭍바이에서의 한 달. 고맙고 감사하다.

행복한 Tara로 사랑 받으며 사랑하며 산 한 달을 잊지 않으려 일기를 다시 읽고 사진들을 되돌아보았지만, 이제는 더 사랑할 수 있는 다음달을 위해 지난 시간들을 놓아 보내야겠다.



왜 나일까, 왜 Mumbai일까. 국내 훈련 때부터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것들은 항상 '왜'였다. 그러면서 나는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명쾌하고 간결하면서도 완전한 답을 찾으려고 발버둥쳤다. 한 달 동안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답도 찾을 수 없었다. 왜 나인지, 왜 나여야만 하는지, 내가 아니라도 상관없을 일들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왜 내가 지금 Mumbai로 보내졌는지도 알 수 없다. 누구의 뜻일까. 다른 곳으로 보내졌어도 상관 없었을까. 고민할 수록 고민할 것들만 더 많아졌다. 이 도시는 나에게, 그리고 아마도 누구에게든 너무나도 큰 것 같다. 내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크다. 이 곳에서 내 자신은 철저히 작은 존재라는 사실과 마주했다. 그리고 어쩌면 내 고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함 예감 속에서 한 달을 보냈다.

어느 날, 까마티푸라에서 한 아이가 풍선을 불며 노는 것을 보았다. 풍선 한 구석에 정말이지 작은 구멍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구멍으로 부는 족족 바람이 빠져나가 아이가 아무리 힘껏 풍선을 불어도 풍선이 부풀어 오르지 않는 것을 보았다. 나 같으면 분명 포기했을 텐데, 그 아이는 불어도 불어도 부풀지 않는, 아마 앞으로도 부풀지 않을 그 야속한 풍선을 집에 갈 때까지도 버리지 않고 계속 불고 있었다. 너무나도 열심이라서, 그런데 나는 그 작은 풍선의 구멍도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존재인가 싶어 슬펐다. 아이에게는 결국 새 풍선을 사다 주지도, 구멍을 메워주지도 못했다. 내가 아무 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Mumbai라는 거대한 도시와 풍선에 있던 그 자그마한 구멍 앞에서 나는 내 자신이 정말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과 마주했다. 그런데 나만 작은 것도 아니다. 거의 모두가 다 그만그만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그냥 작은 존재인 채 살아가면 또 어떤가 싶다. 꼭 내가 큰 무엇인가가 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작은 것들끼리, 작은 것들끼리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 그것만으로도 꽤 괜찮은 것 아닌가. 이제 '왜'라는 질문 말고, '어떻게' 하면 작은 것들끼리 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에서 무엇이라도 될 수 있을까. 정말 다만 무엇이랄도 되고 싶다.



Deepa*



인도에 온지 어언 한 달이 지났다. YMCA 총장님들은 우리와 만날 때마다 **Everything is okay?**라고 물어보시곤 한다. 그때마다 **achi hu!** (좋아)라고 대답한다.

라온아띠 합격한 이후부터 노래를 부르던 인도생활이라 그럴까, 친구들이 '잘지내?' 라고 물어보면 신이 나서 대답한다. 인도날씨에서부터 예쁜 사리, 이 곳에 있는 각 종교들의 문화, 소들이 줄지어 지나다니는 것, 새똥을 맞은 것, 사람들이 까마귀들에게 밥을 주는 것에 대해서까지 답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모두 즐겁다.

사실 이번 달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다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바빴다. 게다가 내가 가진 한계에 마주하다 보니 힘들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매 순간마다 그 한계들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데 까지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날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론 더욱 즐거워졌다.

바빴지만 쉬는시간에 영어도 공부하고 사람들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하던 내가 까르릭, 우남, 사힐... 하나 둘씩 메모도 해가며 이름을 외우려 노력하는 등 하나하나 내 한계를 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즐겁고 이런 내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다

(아, 영문 에세이 꼭 언급하고 싶다. 휴식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슬며시 옆에 앉아서 모르는 부분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좋은 선생님들 (Azad, Tara, Sachin) 덕분에 매주 영어 에세이도 열심히 쓰고 있다.)



하루는 까마티푸라 센터로 가는 길에 있는 슬럼가에서 매일 우리와 마주쳤던 아이들이 갑자기 한 뭉치로 줄래줄래 쫓아왔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날 알아보는 걸까? 우리에게 주는 관심이 신기했고 고맙기도 했는데 자꾸 힌디로 이상한 말을 반복하고 아자드의 가방을 붙잡자 당황스러웠고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이럴 땐 못들은 척 하고 지나가라던 코디네이터들의 조언이 떠올랐다. 다른 사람들이 말을 걸면 상대하지 말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일관된 우리의 무시에도 끝까지 그 아이들은 '머니! 머니!'를 외치며 우리 집 앞까지 쫓아왔다. 이상했다. 정말 단지 돈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쫓아온 걸까?

문득 든 이 생각은 내가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혹시 진짜 돈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우리가 매일매일 그 거리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용기 내어 우리와 친구가 되고자 왔던 건 아닐까? 그리고 혹시 저 아이들이 아는 영어 표현이 우리가 외국인한테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를 자동적으로 말하듯 money! 를 외친 것은 아닐까? 혹시 친해지고자 말 한마디 붙여보고 싶어하는 그들의 진심을 몰라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어느 샌가 우리 집까지 따라온 아이들을 보고 악수를 하며 이름을 물어보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뭔가 이들과 지금 당장 좋은 친구는 될 수 있을 거란 확신은 들지 않지만, 적어도 'money'라는 말이 아닌 'hi, how are you?' 'My name is...' 이런 말들을 알려주면 이 친구들의 진심을 나, 그리고 다른 이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러나 내 생각만큼 되질 않았다. 짧은 힌디 실력으로 설명은 커녕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곤 했다. 게다가 팀원들과 사전에 상의 없이 했던 일이라 자칫하면 나 뿐만 아니라 팀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고 한다. 반성하고 또 반성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난다. 어쩔 때는 Money!가 아닌 우리를 알아보고 **Korea!**라고 외치는 아이들도 있다. 하지만 무슨 단어를 쓰던지 간에 거리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 때 마다 우리 코디네이터나 볼런티어들은 '재가 하는 말에 대답하지마' '신경 쓰지마' '**Deepa, 그들은 너의 친구가 아니야!**' 라고 나에게 말한다. 분명 **우리의 안전**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언가 찝찝하다. 물론 안전을 중요시해야하는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진심으로 친해지고 싶어 다가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만큼 안전하지 않은 곳인가? 싶다.

이러한 찝찝함들이 '인도는 어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더욱 느껴지는 것 같다. 인도에 대해서 좋으면서도 자꾸 마음 한켠이 헛헛하고 불편하다. 도무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 그냥 고민을 접어두었다.

그러다 며칠 전, 다른 슬럼가 지역에서 Boys home 친구들을 우연히 마주친 날, 이 고민은 더욱 커졌다. 정말 좋고, 착한 Boys home 친구들도 그러한 곳에서 살고 있다. 만약 그들을 Boys home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아이들과 친구는 커녕 대화조차도 할 수 없었겠지.....!?



Team 'Saath saath'

3월 사진첩

Mumbai, India





